

# 삶의 가르침 전하는 중국의 '이야기 밭'

중국 고전 《설원》 완역한 임동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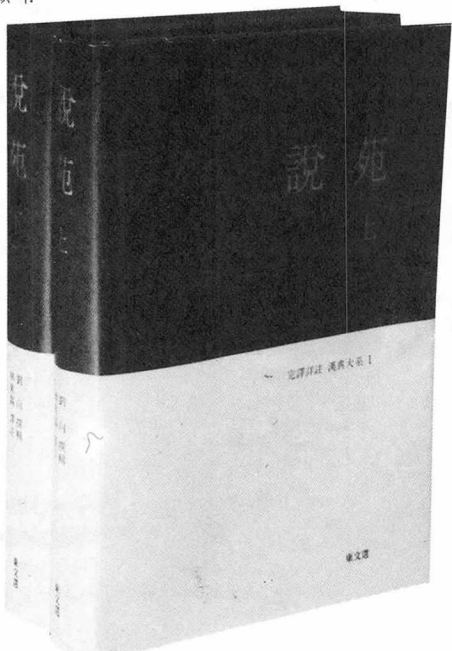
“삼경이나 노자, 장자 등 국내에 이미 많이 소개된 책 외에도 중국 고전 중에는 학문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전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을 번역하는 일에는 다들 무관심한 듯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주석하는 일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임동석(48, 건국대 중문과)교수가 최근 그 첫 결실로 《설원(說苑)》(동문선)을 출간했다.

《설원》은 중국 서한시대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유향(BC 77~6)이 이 책 저 책에서 이야기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제목 그대로 '이야기 밭'이라 할 수 있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이 멀리 고대부터 서주·동주를 거쳐 진·한대까지 어지고 내용 또한 다양하기 그지없다.

## 전적 살살이 뒤져 관련 전문 수록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과 용인술(用人術), 남을 받들어 모실 때의 태도와 임무, 근본과 절도를 세워 살아가는 방법, 덕을 귀히 여기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능력 있고 어진 이를 찾아내어 천하를 이롭게 해야 할 이유, 사물을 바로 보고 그에 대처할 줄 아는 지혜, 만물의 본질과 귀착, 나아가 검약과 질박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하는 글은 물론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존재론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다.



유향에 의해 해당초 20권 784장으로 편찬된 《설원》은 북송 초에 이르러 5권만 남아 있던 것을 증공(曾鞏:1019~1083)이 20권 639장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증공은 19권 '수문(修文)' 편을 두 권으로 분책해 20권으로 늘린 것이어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송나라 철종 때에 이르러 고려가 가지고 있던 《설원》의 판본을 바탕으로 본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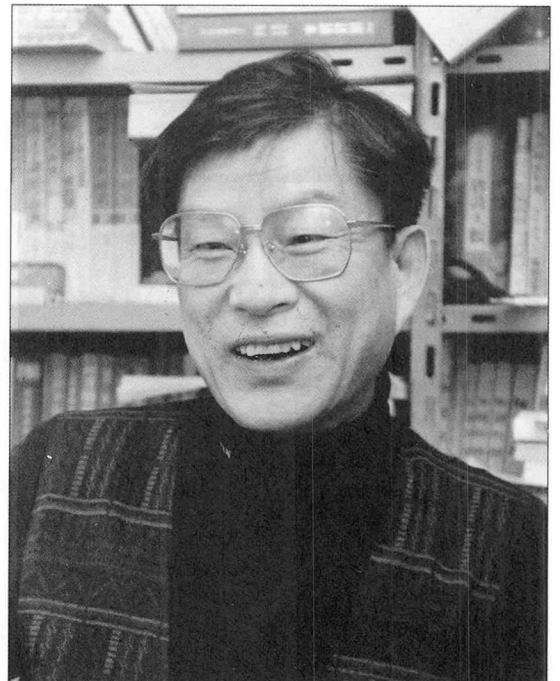
《설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전적'에 대한 애정이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 기분좋은 일이다.

임교수는 《설원》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846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뿐만 아니라 각종 동양학 서책에 자주 등장한다. 《설원》이 중국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적임을 반증한다. 대화 형식이 중심을 이루는 생동감 넘치는 《설원》의 문체는 편찬자인 유향 당대에 풍미하던 백화체. 문법 및 어휘연구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소설 및 필기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중요한 전적의 국내 최초의 완역이라는 점에서 임교수의 작업은 의의를 지닌다.

특히 임교수는 원문을 단순히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국 고전 전적들을 살살이 뒤져 《설원》에 등장한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전문을 수록해놓아 눈길을 끈다.

가령, 《설원》의 12권째 봉사(奉使) 부분에 나오는 제나라 군주 경공의 신하 안자(晏子)의 이야기를 보자. 안자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 굴을 대접받는다.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라 껌질째 먹는 것을 보고 초왕이 비웃자, 안자가 “임금께서 내려주신 것이면 참이나 복숭아는 물론 굴이나 유자도 껌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다”고 말해 자신의 무지(無知)를 재치있게 무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교수는 ‘참고’ 난을 따로 두어 같은 이야기가 《안자춘추》잡하(雜下) 6권에도 나온다고

“《설원》은 한마디로 재미있는 이야기책입니다. 중국의 역사나 문화,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도 통용되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동석 교수.

밝히고 그 전문을 수록해 《설원》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작업을 위해 임교수는 십이경(十二經)과 제자서(諸子書)를 살살이 훑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판본 비교 통해 오류 수정해

이번 책에서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현존하는 《설원》의 판본들을 비교해 임교수 나름의 '정본'을 만들었다는 것. 임교수는 문연각 사고전서본(文淵閣 四庫全書本)을 근간으로 하고 사부총간본(四部叢刊本), 사부비요본(四部備要本)을 일일이 비교하여 누락된 곳과 순서가 바뀐 곳, 문자에 오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여 일일이 주를 달아 표기하는 꼼꼼함을 보여준다.

“일일이 판본을 대조하고 문자를 확정지은 다음 다시 관련 참고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문·사·철의 전적을 살피는 작업이 매우 더디고 고통스러웠다”고 밝히는 임교수는, 그러나 이를 끝내고 나서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각기 다른 전적에 조금씩 차이가 나게 수록돼 있는 중국의 고사를 한 곳에 모아 둬으로써 언어·문자 측면의 연구는 물론이고 교감학·판본학·집일학·문학 등 다양한 학문 연구의 기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임교수의 자평이다.

《설원》은 비단 학문적으로 중요한 전적만은 아니다. “《설원》은 한마디로 재미있는 이야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역사나

문화,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도 통용되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교수는 특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특히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인 양왕손이 자신이 죽은 후에 알몸으로 매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 등은 더 가지고 싶어 안달하는 요즘의 ‘있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공부가 하고 싶어 가을, 무작정 상경해 신문배달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고단한 고학 시절의 습성이 몸에 배어 요사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임교수는 방학이나 휴일에 상관없이 연구실을 지킨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데, 홀로 하는 ‘면벽식사’가 가끔씩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이 정말이지 아깝다고 한다.

“50종 정도면 죽을 때까지 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임교수는 《설원》 외에 이미 10여종의 책을 완역,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들은 조만간 동문선의 ‘완역상주한전대계’ 시리즈로 속속 출간될 예정이다.

내방가사를 줄줄이 외우시던 안동 태생의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한문문장에 익숙할 수 있었다는 임교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어 늘 기분이 좋다.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살기도 바쁘지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 박남정 기자